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연말연시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무언가는 예년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5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았는데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양정책에 의하여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를 바쁘게 했던 한해였으며,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부양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건설시장이 전반적으로 한계에 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만을 늘려서 경기하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어렵게 해소된 미분양아파트를 재연시키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정책변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더욱더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후의 공급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시장의 왜곡현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과 EU의 경기회복 지연, 저유가,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신흥국들과 중국의 저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 IS 등의 테러확산 등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국만은 경제회복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기축통화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가 세계 각국에서 이탈하거나 통화정책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도 이러한 환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와는 달리 올해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는 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우리의 사정도 어려움은 예외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어 교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는 이러한 많은 변수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부당국의 몫으로만 돌리기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항상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상황도 정부정책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체질에 맞는 자생력을 키워 새로운(틈새)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1800년대 찰스 다윈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종(種)은 크고 강한 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3~4년이 우리에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국내외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성취해 나가는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신년 새해아침

한국CM협회 배영휘

